

관광지도에서 사라진 광주... 전남과 연계 상품 개발해야

여수·순천 연 1000만명 넘어도 광주 혜택 못누려

면세점 등 쇼핑시설과 숙박시설 등 인프라 갖춰야

국내 관광지 '톱 100'에 광주지역 관광지점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광주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지역은 여수와 순천 지역에만 한 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한국의 가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지만 이 효과를 광주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숙박 시설과 면세점 등 쇼핑 시설을 갖추고 전남~광주, 제주~광주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광객 이끌 전략을 짜라

◇유명 관광지 관광객을 광주로 이끌어야 = 들어 광주지역에서 중국 관광객이 사라졌다. 2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백화점 방문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백화점은 말게는 한 달에 400여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맞았다. 하지만 올 해는 단 한 차례도 중국인 단체가 찾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관광지가 다소 부족한 광주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남, 제주 등지의 국내 유명 관광지와 연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때 바다와 섬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제주 관광을 마친 뒤 배를 타고 장흥, 완도를 거쳐 광주를 찾아 정육성 생가 등을 둘러봤던 것처럼 주변의 인기 관광지의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국내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여수와 순천 등지와 광주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하라

◇숙박시설, 면세점 유치도 = 광주의 관광 인프라가 취약하다 보니, 숙박시설을 늘리고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남과 제주의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광주로 이끌기 위해서는 편하게 쉬 수 있는 숙박시설과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면세점도 필요하다. 가령, '무안공항입국~여수·순천 관광~광주특급호텔 숙박~아시아문화전당 공연 관람~면세점 쇼핑'이나 '제주공항입국~장흥·완도를 통한 전남 관광~광주에서의 숙박 및 쇼핑'으로 연

결되는 패키지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비단 광주만을 위한 관광 전략은 아니다. 여수와 순천 등지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X 연계 관광상품인 '내일로'를 이용해 여수 등지를 찾은 젊은이들이 여수에 머물지 않고, 부산 등지로 빠져나가거나 여수와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쇼핑을 위해 김해나 부산으로 이동해 많은 돈은 그 곳에서 쓰는 문제가 있다.

아름다운 전남의 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돈이 되는 '머무르는 관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광주에 면세점이 생기면 전남지역에서도 '면세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광주만의 색깔 찾아라

◇'인권·의료 관광' 등 광주만의 '색' 찾아야 = 최근 국립5·18민주묘역 등 광주의 5월 유적지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핵단체 대표 13명의 '광주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5월의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촛불 집회'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문화를 배우야 하며, 그 원천은 광주에 있다"고 판단, 대표단을 꾸려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촛불 집회'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문화를 배우야 하며, 그 원천은 광주에 있다"고 판단, 대표단을 꾸려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안내 광주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 코스 없이 5·18 현장만 둘러봤는데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속한 단체와 '다시 광주를 찾겠다'는 약속도 했다"면서 "현재 광주시가 인근 지역 관광지를 도는 '시티투어'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주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의료관광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관광부문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액이 각각 269억원, 22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국 17개 시·도 지출액 순위로는 광주가 15위, 전남은 16위에 그쳤다. 반면, 광주는 의료 부문에서는 9위(20억원)를 기록했다. 지역 의료수준이 국내 상위권인데도 병원들이 해외 환자 유치 등에 공을 들인 게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잡은 당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는 사랑과세·소득세는 존경과세”

당정, 27일 세제개편 논의...자본소득 과세 제도 정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다. 특히 여권은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 개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날 조정을 마친 뒤,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한 차례 정도 논의를 더 거친 뒤에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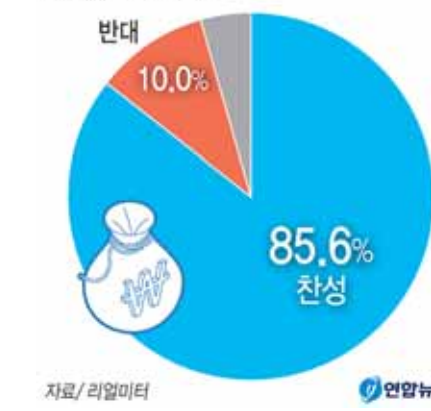
이를 반영하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초유량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냈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2%포인트 정도를 더 내게 하지는 것인데, 감면 뒤 실효세율은 30%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그야말로 존경과세다. 부자들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가 좀 더 화합하고 공정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 문제화하고 싶겠지만, 국민이 (당정의 방침을) 훨씬 더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자증세’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가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 ±4.4%p)



강조했다. 일각의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지적에 대해서 “기업이 어디에 소재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법인세만

이 아니다”며 “기업의 소재 결정 요인을 알면서 그러는 것이라면 불량한 것이고,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면 무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서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앞으로는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증세는 최후 수단” 신중...캐스팅보트 강화 전략

국민의당은 24일 여권에서 촉발한 ‘초고소득 증세’ 논의에 대해 재조정 방안 없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심화하는 것이 현

실”이라며 증세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증세 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 협의가 없었다”며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이 두 원칙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증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 등

에서 보인 원내 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일관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45일간 여야간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도 강운 양면을 오가며 원내 입지를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국민의당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 “국민의당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

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추경을 통과시키며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신(新)3당 공조’를 확인한 만큼 다음 과제인 증세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에 협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당시 명목 법인세 일괄 3% 인상을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향후 논의가 진행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부분적 증세에 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이번 여름휴가도 역시! 무안출발 해외여행

떠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추천여행지! 가까운 무안출발로 지금 떠나세요!

클래식 AVPF13_TWA

전일정 5성급호텔 + 호이안 아간시티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6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비 \$40 /선택경비 있음

🕒 7월 27일(목) ~ 10월 29일(일) / 날짜별 요일 상이

➔ 티웨이항공

🎁 호이안 아간시티투어 (\$30상당) 포함

캐주얼 AVPF10_VJ1

전일정 4성급호텔 + 비경관포함
하노이 · 하롱베이 · 님빈 5일

총 상품가격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비 \$40 /선택경비 있음

🕒 6월 3일(토)~8월 14일(월) / 날짜별 요일 상이

➔ 비엠허 항공

🍷 특식 2회(염소불고기, 락비엣 레스토랑)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전시일자 : 17년 10월 15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정점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정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상품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인.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함. ■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장] 여행상품의 변경은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령자 등록번호] 제269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성급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여행 보험] 여행자 보험 1인당 1회,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가능함. ■ [여행 상품] 여행 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일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참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